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강 민 성¹⁾

김 경 은²⁾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만 4세, 5세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참여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어떠한 관련성과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충청남도 에 소재한 18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 4세, 5세 유아 222명과 그들의 아버지이다. 빈도와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아버지의 자녀가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중 정서적 차원이 자녀의 또래유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요인 중 생활지도가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양육참여, 양육효능감, 또래유능성

* 본 논문은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확장한 것임.

1)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영유아보육 · 교육전공,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E-mail: leejay48@chol.net)

I. 서론

유아가 성장·발달함에 따라 그들의 관심은 점차 가족에서 친구, 교사, 이웃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로 확장된다. 이 시기의 유아에게 있어 또 하나의 사회적 환경으로 중요한 대상 중의 하나가 바로 또래와의 관계이다. 지난 수십여년 동안 유아의 또래집단은 유아의 주요한 사회적 맥락으로 여겨져 왔고(Rubin, Bukowski, & Laursen, 2009; Rubin, Bukowski, & Parker, 2006), 실질적으로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 및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래관계는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래간의 상호작용 역시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아와 성인 간 상호작용과 뚜렷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또래유능성이란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또래관계 내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박주희, 2001).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나가고, 또래를 사회적 비교 준거로 삼아 자신을 평가하고 더 넓은 세계를 알아 나간다. 또래와의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유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유사하게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교류 능력은 우정, 사회적 관계망, 또래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wes, 2009; Ladd, 2005; Santos, Vaughn, & Bost, 2008). 또래유능감이 높은 아이는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전반적으로 우수한 적응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ckhill,

Stoep, McCauley, & Katon, 2009). 이와 더불어 종단연구에 따르면 또래관계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성장한 후에 부적응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Hymel, Bowker, & Woody, 1993) 또래관계의 어려움은 중퇴, 비행, 정신병리적 문제 등 이후의 부적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ie, Lochman, Terry, & Hyman, 1992; Parker & Asher, 1993). 특히 유아기 또래 유능성에서의 개인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동기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또래유능성에서의 개인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Santos, Vaughn, Peceguina, Daniel, & Shin, 2014), 또래와 성공적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 즉 또래유능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생애 초기 양육자인 어머니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이나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Ladd & Hart, 1992). 예를 들면, 어머니와 자녀 간의 정서적인 유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Brody, Dorsy, Forehand, & Armistead, 2002), 어머니의 따뜻하고, 애정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긍정적 참여는 유아의 최적의 사회적, 인지적 기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Landry, & Swank, 2000).

이에 비해 아버지가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된지도 그리 오래되

지 않았다. 국내 아버지 연구의 동향을 살펴 보면, 최근 들어 영유아 발달에 있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아버지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경은, 김연아, 2017). 현대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가족구조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의 증가, 여성의 자기개발이라는 사회풍토와 더불어 자녀 양육이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닌 부모 공동의 관심사로 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양육은 여성의 역할이며 남성은 보조자’라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역할이 가사분담의 보조자 역할이 아닌 자녀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도모하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역할로 변화되고 있다. 아버지 역할은 경제적 제공자의 역할 혹은 자녀 훈육자로서의 역할로 인식되어 왔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능동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며 자녀의 활동에 참여하는 측면까지 아버지의 역할로 부각되고 있다(Raley, Bianchi, & Wang, 2012). 이러한 변화로 오늘날 젊은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산책을 하고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이에 새로운 신조어 Friend와 Daddy를 합성한 ‘친구 같은 아빠’ 즉 ‘프렌디(friendly)’란 용어가 생겨났다(데일리안, 2007). 이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아버지’ 보다는 ‘자상하고 친구같이 대화하는 아버지’를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이숙현, 2006). 더불어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은 자녀의 성격 형성, 가치관,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Brown,

Mangelsdorf, & Neff, 2012; Huerta et al., 2013)만 아니라 성년기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McHale, Rao, & Kransonw, 2000).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기 성장발달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개념화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아버지 양육참여의 개념을 정교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Cabrera & Tamis-LeMonda, 2014; Pleck, 2012). 몇몇 연구에서는 아버지 참여를 아버지의 물리적 참여(Keown & Palmer, 2014) 혹은 아버지의 태도(Dubeau, Coutu, & Lavingueur, 2013)에 초점을 두었다. Barnett과 Baruch(1987)는 자녀의 생일, 소풍, 운동회와 같은 아동의 모임이나 병원, 유치원, 학교에 데리고 가거나 데려오기, 자녀의 선생님을 방문하거나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기, 아동의 방을 청소하거나 잠자리를 보살펴주기, 아동의 옷이나 필요한 물건 사주기, 아동과 함께 외출하기, 아동의 건강 보살피기 등을 아버지 양육참여에 포함시켰다. Pleck(2012)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아버지 참여의 5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긍정적 활동 참여(예: 게임하기, 책읽기, 운동하기 등), 온정성과 반응성(예: 안아주기, 사랑을 표현하기 등), 통제(한계설정), 간접적 돌봄(예: 아동 돌봄을 선택하기, 아동을 위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준비하기), 과정적 책임(예: 위 네 가지 활동을 감독하기) 등이 포함된다. 최근 들어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참여에 비해 더 적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준다(권희경, 2009).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가 증가할수록 유아의 인지능력이 향상되고 공감 능력이 증가하는 반면(권정운, 정미라, 이방실, 2015), 아버지의 참여가 낮을수록 자녀가 또래와 부정적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ennedy, Betts, Dunn, Sonuga-Barke, & Underwood, 2015).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특성이 자녀의 유능성과 지도성에 영향을 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정서조절에 도움이 된다(임재운, 문동규, 김영희, 2009; 최경순, 정현희, 1995)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의 장난감과 놀이에 대해 알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다(우미경, 2006). 이처럼 아버지 양육참여와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자녀의 정서 혹은 사회성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자녀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한편, 양육효능감이란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데(Coleman & Karraker 1998), 이런 측면에서 아버지 양육효능감이란 아버지 역할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자녀 양육에 관한 어려움도 자신이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아버지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아버지로서 양육효능감을 갖기 위해서는 유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며, 유아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부모가 갖는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전통적 가치관에서 현대적 가치관으로의 과도기적 시기에 놓여 있는 한국 아버지들의 경우 부모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 없이 아버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일상생활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자녀와 어떻게 놀아야 하고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자녀발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사회적 적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leman 2003; Jones & Prinz 2005; Oelofsen & Richardson 2006). 예를 들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아버지의 자녀들은 인지적 능력, 또래수용 능력, 자기 수용능력,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기 지각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장석경, 이지현, 2008). 출생 후 아동기까지의 부모 특성과 아동의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결과, 자녀 출생 후 부모로서 유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이후 양육행동에 중요한 기초가 되며, 이것은 이후 아동기 정서적 행동적 결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oskam, Meunier, & Stievenart, 2016). 이와 유사하게 유아가 4세 때 측정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5세 때의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고, 6세 때의 외현화된 행동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oskam et al., 2016).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효능

감이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의 한 측면인 또래 유능성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아버지의 역할 참여와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또래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을 반영하는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행동적 측면을 반영하고,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인지적, 신념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아버지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측면이 자녀의 또래유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 효능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 효능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 효능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버지의 역할참여와 역할효능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유의표집을 통해 수집된 충남에 소재한 18개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만 4세, 5세 유아와 그들의 아버지 222쌍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효능감 척도는 유아의 아버지에게 질문지를 통해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유아의 또래유능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보이는 또래관계에서의 유능성을 평정하기 위해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만 4세가 127명(57.2%) 만5세가 95명(42.8%)이었으며 남아 117명(52.7%), 여아 105명(47.2%)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 및 대학교 중퇴가 31.5%, 대졸이 28.8% 대학원 이상 2.7%로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기타 21.6%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직 및 전문직이 각 19.4% 서비스직 14.0%, 사무직이 13.5%, 단순노무직 8.6%, 판매직이 3.6% 분포를 보였다. 아버지의 연령은 30세에서 39세 미만이 61.7%, 40세 이상이 38.3% 분포를 보였다.

2. 측정도구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측정 도구는 일상생활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조사하는 도구로서, 최경순(1992)이 개발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경순(1992)은 요인 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각 하위 척도는 여가활동참여, 생활지도, 가사활동참여, 인지적 성취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가활동참여는 자녀와 함께 나들이 등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정도를, 생활지도는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을 위해 조력하는 정도를, 가사활동참여는 자녀를 위해 식사준비, 설거지, 침구정돈 등에 참여하는 정도를, 인지적 성취 지도는 자녀의 장난감, 책에 대해 알며, 유치원에서 배우는 내용에 아버지가 관심을 갖고, 준비물 챙기기 등을 조력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여가활동 .85, 생활지도 .88, 가사활동 .82, 인지적 성취 지도 .71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Gibaud-Wallston과 Wondersman(1978)이 개발한 것으로 신숙재(1997)가 변안한 PSOC(Parent Sense of Competence)를 사용하였다. 신숙재(1997)는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입증하였으며, 총 16문항이다.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측정하는 9문항(예: 나의 행동이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정서적 차원의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을 측정하는 4문항(예: 내가 자녀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려고 해도 자녀가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부모 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측정하는 3문항(예: 부모역할 보다 다른 분야에 더 흥미와 관심을 느낀다)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인지적 차원 .80, 정서적 차원 .69,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 .69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또래유능성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주희와 이은혜(2001)가 개발한 또래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박주희와 이은혜(2001)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래유능성은 또래관계에서의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등 3개 하위요인으로,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교성은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며, 여러 아이들과 고루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친사회성은 다른 유아를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주도성은 또래 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끌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사교성 .91, 친사회성 .88, 주도성 .87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일반적인 경향

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종속변인으로,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1단계 독립변인으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2단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일반적 경향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하위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여가활동은 3.50($SD = .75$), 생활지도는 3.47($SD = .70$), 가사활동은 3.10($SD = 1.00$), 인지적 성취 지도는 2.74($SD =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경우, 하위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정서적 차원의 효능감이 3.43($SD = .79$),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3.42($SD = .65$), 인지적 차원의

표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222$)

변인		<i>M</i>	<i>SD</i>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여가활동	3.50	.75
	생활지도	3.47	.70
	가사활동	3.10	1.00
	인지적 성취 지도	2.74	.81
	전체	3.34	.65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인지적 차원	3.27	.57
	정서적 차원	3.43	.79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	3.42	.65
	전체	3.34	.51
유아의 또래유능성	사교성	3.51	.81
	친사회성	3.40	.81
	주도성	3.42	.79
	전체	3.34	.71

효능감이 3.27 ($SD = .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경우, 하위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사교성은 3.51($SD = .81$), 주도성은 3.42($SD = .79$), 친사회성은 3.40($SD =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총점은 유아의 또래유능성 총점과 유의한 정적상관($r = .15, p < .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은 또래유능성 총점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생활지도($r = .20, p < .001$)와 인지적 성취 지도($r =$

.14, $p < .05$)는 아동의 또래유능성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또래유능성 하위요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여가활동은 유아의 사교성($r = .15, p < .05$), 주도성($r = .16,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인 생활지도 또한 유아의 사교성($r = .23, p < .001$), 주도성($r = .21,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의 인지적 성취지도는 유아의 사교성($r = .14, p < .05$)과만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인 가사활동은 또래유능성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총점은 유아의 또래유능성 총점과 유의한 정적상관($r = .33, p < .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은 또래유능성 총점과

표 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상관관계 ($N = 222$)

변인	하위요인	또래유능성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총점
아버지 양육참여도	여가활동	.15*	-.01	.16*	.11
	생활지도	.23***	.08	.21***	.20***
	가사활동	.08	.02	.09	.07
	인지적 성취 지도	.14*	.11	.13	.14*
	전체	.18***	.04	.18***	.15*
아버지 양육효능감	인지적 차원	.31***	.18***	.25***	.28***
	정서적 차원	.30***	.23***	.24***	.29***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	.17*	.07	.13	.15*
	전체	.35***	.22***	.28***	.33***

* $p < .05$. *** $p < .001$.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차원($r = .28, p < .001$), 정서적 차원($r = .29, p < .001$),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r = .15, p < .05$)는 아동의 또래유능성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하위요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인지적 차원은 유아의 사교성($r = .31, p < .001$), 친사회성($r = .18, p < .001$), 주도성($r = .25, p < .0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인 정서적 차원 또한 유아의 사교성($r = .30, p < .001$), 친사회성($r = .23, p < .001$), 주도성($r = .24, p < .0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인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유아의 사교성($r = .17, p < .05$)과만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종속변인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을 1단계 독립변인으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을 2단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회귀계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잔차항들이 서로 독립적이며 정규분포를 이루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VIF 값은 1.00~1.32로 1에 가까웠으며, Durbin-Watson 계수는 1.82로 정상분포곡선을 의미하는 2에 가깝게 나타나 오차 항들 간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만 투입된 모형 1에서는 양육참여도 하위요인 중 생활지도($\beta = .18, p < .01$)만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였다($F = 7.00, p < .01$). 모형 2에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정서적 차원($\beta = .28, p < .001$)만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모형 2의 설명력은 모형 1보다 7% 증가하여 전체변량의 10%를 설명하였다($F = 12.07, p < .001$). 모형 2에서 투입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요인(정서적 차원)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요인 외에도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설명하는 데 추가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감과 좌절감이 낮을수록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서적 차원의 양육효능감($\beta = .28, p < .001$)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생활지도 참여($\beta = .18, p < .01$)가 추가적으로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감과 좌절감이 낮을수록, 자녀의 일상생

표 3.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N = 222)

독립변인	모형 1		모형 2	
	B	β	B	β
양육참여도 생활지도	.18	.18**	.10	.10*
양육효능감 정서적 차원			.24	.28***
R^2	.03		.10	
ΔR^2			.07***	
F	7.00**		12.07***	

* $p < .05$. ** $p < .01$. *** $p < .001$.

활과 관련된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자녀가 또래관계에 보다 유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양육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인지적 성취를 제외하고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의 평균이 3.50($SD = .75$)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영숙(2007)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아버지 여가활동의 평균 3.07($SD = .85$)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이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측정하는 척도에서의 차이이거나 표본들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으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점차적으로 높아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들어 친구 같은 아버지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자녀와 함께 놀이나 레저를 즐기는 아버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Doucet(2009)은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동반하여 놀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아버지가 돌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평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로는 볼 수 없으나 상대적으로 정서적 차원의 양육효능감 평균이 인지적 차원에서의 효능감,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 및 흥미의 평균보다 높았다. 아버지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흥미,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적 자신감 보다는 아버지들은 부모로서의 안정감이나 자신감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불안이나 좌절감은 양육효능감에서 정서적 측면을 반영하는데,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불안이나 좌절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부정적 양육행동이나 과보호적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Möller, Majdandžić, & Bögels, 2015)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들의 정서적 차원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아의 또래유능성 평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지만 사교성의 평균이 3.51($SD = .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유능성의 하위요인 중 사교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박미리(2011)의 결과와 일치한다. 유아기에는 언어가 발달하고 또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발달적 시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총점 및 하위요인은 유아의 또래유능성 총점 및 하위요인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또래관계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우미경, 2006; Amato & Dorius, 2010; Kennedy, Betts, Dunn, Sonuga-Barke, & Underwood, 2015)와 일치한다. 즉,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유아기 자녀의 또래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여가활동참여, 생활지도, 인지적 성취지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교성이 높고, 아버지의 여가활동참여, 생활지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주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Brown et al., 2012; Huerta et al., 2013)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정책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직장과 일에 쫓겨 자녀양육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아버지들에게 탄력적 근무시간제, 육아휴직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고, 또한 자녀 양육에 어머니의 책임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총점 및 하위요인은 유아의 또래유능성 총점 및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및 적응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Coleman 2003; Jones & Prinz 2005; Oelofsen & Richardson 2006)과 맥을 같이 한다. 아버지가 부모로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고,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으며,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높을수록 자녀들은 또래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Roskam et al., 2016).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진 아버지는 자녀에게 보다 놀이친구로서의 역할, 위험하거나 낯선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접근의 시도와 같은 ‘외현적 보호(external protection)’ 역할을 하는데 보다 능숙하기 때문에(Bögels & Perotti, 2011) 자녀가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자녀의 주도성을 격려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지각하는 정서적 차원에서의 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추가적으로 생활지도에 대한 참여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감과 좌절감이 낮을수록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높고, 아버지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등과 같은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긍정적 또래관계나 친사회적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장영애, 이영자, 2003; Amato & Dorius, 2010; Kennedy et al., 2015)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는 것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아동의 또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참여가 유아의 또래유능성 증진을 예측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녀와의 여가활동, 자녀와의 인지적 활동, 자녀를 위한 가사활동 참여보다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이나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관련된 일상적 참여가 유아의 또래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아의 측면에서 보면 아버지와의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밑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Bhavnagri와 Parke(1991)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는 어머니만큼이나 유아의 또래 관계 형성에 있어 촉진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어린 유아의 경우

아버지가 잘 놀아주고 자녀와 원활하게 상호작용할수록 자녀가 또래와의 놀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아버지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표집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양육효능감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명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처럼 설명력이 높지 않은 것은 실제로 아버지의 특성이 자녀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높지 않기 때문인지, 표집은 적절했는지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세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의 성별이나 기질, 또래 수용도 등과 같은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양육효능감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아버지 양육참여와 양육효능감과 자녀의 개인적 특성 간의 경로를 설정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의 기질이나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지, 혹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정서능력(예를 들면,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등)을 매개

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더욱 비중이 높아질 아버지 역할에 대한 정립 및 아버지 양육참여 방법,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고취 방법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에 관한 관심을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권정윤, 정미라, 이방실 (2015). 아버지의 놀이 상호작용이 유아의 인지, 동작,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5(1), 333-350.
- 권희경 (2009).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 유아의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3(4), 79-98.
- 김정은, 김연아 (2017). 국내 아버지 관련 연구 동향-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4(2), 1-18.
- 김영숙 (2007).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데일리안 (2007. 9. 3). 대한민국 아빠들. '프렌디(Friend+Daddy) 되고파!'. <http://www.dailian.co.kr/news/view/80200>에서 2017년 5월 25일 인출
- 박미리 (2011).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 이은혜 (2001). 취학 전 아동용 또래 유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21-232.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미경 (200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현 (2006). 생산직남성의 아버지 역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133-150.
- 임재윤, 문동규, 김영희 (2009). 아버지의 직장 생활 만족도에 따른 부부갈등 및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2), 98-118.
- 장석경, 이지현 (2008). 아버지의 부모효능감과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기능력에 능력에 대한 지각. *열린유아교육연구*, 13(2), 73-89.
- 장영애, 이영자 (2009).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8(3), 619-629.
- 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순, 정현희 (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역할수행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1), 125-139.
- Amato, P. R., & Dorius, C. (2010). Fathers,

- children and divorce. In M.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pp. 177-200). NY: Wiley.
- Barnett, R. C., & Baruch, G. K. (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1), 29-40.
- Bhavnagri, N., & Parke, R. D. (1991). Parents as direct facilitators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Effects of age of child and sex of parent.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Relationships*, 8(3), 423-440.
- Bögels, S. M., & Perotti, E. C. (2011). Does father know best? A formal model of the paternal influence on childhood social anxiet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0(2), 171-181.
- Brody, G. H., Dorsey, S., Forehand, R., & Armistead, L. (2002). Unique and protective contributions of parenting and classroom processes to the adjustment of Africa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single parent families. *Child Development*, 73(1), 274-286.
- Brown, G. L., Mangelsdorf, S. C., & Neff, C. (2012). Father involvement, paternal sensitivity, and father-child attachment security in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3), 421-430.
- Cabrera, J. J., & Tamis-LeMonda, C. S. (Eds.). (2014).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xon: Routledge.
- Coie, J. D., Lochman, J. E., Terry, R., & Hyman, C. (1992). Predicting early adolescent disorder from childhood aggression and peer reje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5), 783-792.
- Coleman, P. K. (2003). Perceptions of parent-child attachment, social self-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2(4), 351-368.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Dorsey, S., Klie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2), 295-305.
- Doucet, A. (2009). Dad and baby in the first year: Gendered responsibilities and embodi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24(1), 78-98.
- Dubeau, D., Coutu, S., & Lavingueur, S. (2013). Links between different measures of mother/father involvement and child social adjust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3(6), 791-809.
- Gibaud-Wallston, J., Wandersmann, L. P., John F. Kennedy Center for Research on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 Demonstration and Research Center for Early Education.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Nashville: John F. Kennedy Center for Research on Education

- and Human Development.
- Howes, C. (2009). Friendship in early childhood. In K. H. Rubin, W. M. Bukowski, & B. Laursen (Eds.), *Handbook of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pp. 180-194). NY: Guilford Press.
- Huerta, M. C., Adema, W., Baxter, J., Han, W.-J., Lausten, M., Lee, R., & Waldfogel, J. (2013). *Fathers' leave,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 development: Are they related? Evidence from four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40, OECD Publishing, Paris.
- Hymel, S., Bowker, A., & Woody, E. (1993). Aggressive versus withdrawal unpopular children: Variations in peer and self-perceptions in multiple domains. *Child Development*, 64(3), 879-896.
-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 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3), 341-363.
- Kennedy, M., Betts, L., Dunn, T., Sonuga-Barke, E., & Underwood, J. (2015). Applying Pleck's model of paternal involvement to the study of preschool attachment quality: A proof of concept stud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5(4), 601-613.
- Keown, L. J., & Palmer, M. (2014). Comparisons between paternal and maternal involvement: Early to middle childhood.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4(1), 99-117.
- Ladd, G. W. (2005). *Children's peer relations and social competence: A century of progres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Ladd, G. W., & Hart, C. H. (1992). Creating informal play opportunities: Are parents' and preschoolers' initiation related to children's competence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6), 1179-1187.
- McHale, J. P., Rao, N., & Krasnow, A. (2000). Constructing family climates: Chinese mothers' reports of co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 behavior problem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1), 111-118.
- Möller, E. L., Majdandžić, M., & Bögels, S. M. (2015). Parental anxiety,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 anxiety: Differential associations for fathers and mo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9), 2626-2637.
- Oelofsen, N., & Richardson, P. (2006). Sense of coherence and parenting stress in mothers and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31(1), 1-12.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Pleck, J. H. (2012). Integrating father involvement in parenting research.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2(2-3), 243-253.
- Raley, S., Bianchi, S. M., & Wang, W. (2012). When do fathers care? Mothers' economic contribution and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 ca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5), 1422-1459.
- Rockhill, C. M., Stoep, A. V., McCauley, E., & Katon, W. J. (2009). Social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between comorbid depressive and conduct problems and functional outcomes in middle school children. *Journal of Adolescence*, 32(4), 535-553.
- Roskam, I., Meunier, J. C., & Stievenart, M. (2016). Do mothers and fathers moderate the influence of each other's self-efficacy beliefs and parenting behaviors on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6), 2034-2045.
- Rubin, K. H., Bukowski, W. M., & Laursen, B. (Eds.). (2009). *Handbook of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NY: Guilford.
- Rubin, K. H., Bukowski, W., & Parker, J. G.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571-654). NY: Wiley.
- Santos, A. J., Vaughn, B. E., & Bost, K. K. (2008). Specifying social structures in preschool classrooms: Descriptive and functional distinctions between affiliative subgroups. *Acta Ethologica*, 11(2), 101-113.
- Santos, A. J., Vaughn, B. E., Peceguina, I., Daniel, J. R., & Shin, N. (2014). Growth of social competence during the preschool years: A 3 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85(5), 2062-2073.
- Smith, K. E., Landry, S. H., & Swank, P. R. (2000). The influence of early patterns of positive parenting on children's preschool outcomes.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1(2), 147-169.

1 차원고접수 : 2017. 07. 10.

수정원고접수 : 2017. 08. 12.

최종게재결정 : 2017. 08. 23.

The Effect of the Paternal Parenting Participation and Parenting Efficacy on the Peer Competence of Preschoolers

Kang, Min Sung

Kim, Kyoung-Eun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ental involvement and efficacy and the peer competence of their preschool age children.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22 preschoolers and their fathers in 18 different daycare centers located in the Chungcheong province.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questionnaires concerned with the one's participation and efficacy as a parent as perceived by the fathers as well as peer competence of preschoolers as measured by teachers.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were conducted in analyzing the research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ther's involvement and their efficacy as a paren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ir children's peer competence. The children were more adept at building peer relationships when the fathers were less anxious and got less discouraged about child rearing and engaged in helping their children to cultivate basic manners and acquire good life habits.

Keywords: parenting participation, parenting efficacy, peer competence